

졸업식 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?

졸업을 앞둔 고3의 학부모입니다. 선생님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도 '김영란법'에 저촉될까봐 학기중에는 선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.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더 이상 관련이 없으니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감사 표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, 졸업생이 졸업식 날 선생님께 꽃다발과 감사 선물을 드리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_ 김준미(48·서울 은평구 구산동)

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식 날 선물을 해도 됩니다.

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선물을 주는 학생 및 학부모와 선물을 받는 교사 간의 '직무 관련성' 유무입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'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'에 따르면,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,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,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.

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, 해당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, 사교·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(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 원 이하)의 선물은 허용됩니다. 다만, 선물을 하려는 담임 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계자는 "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. 만약 졸업생의 동생이 아직 재학 중인 경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므로 불가능하다"라고 말합니다. @

MORE TIP

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'청탁금지법'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와 대상은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외국인학교, 일반대·전문대·대학원과 사립학교의 교직원입니다.

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@naeil.com

수시에서 같은 대학, 같은 학과를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나요?

예전에 지인의 자녀가 같은 대학, 같은 학과를 다른 전형을 통해 중복 지원했다고 들었는데요. 지금도 가능한지, 그리고 한 학과에 복수 합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.

_ 정길선 (48·부산 해운대구 좌동)

같은 전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전형으로는 대다수 대학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서울대의 경우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경영학과를 지원하면서 지역 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, 즉 다른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그 외 대다수 대학은 다른 전형으로는 동일 대학, 동일 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고려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,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두 번 지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

다만, 동일 전형 내에서 같은 학과를 여러 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 학업 우수형, 계열 적합형, 기회 균등 전형이 있지만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동시에 사회학과를 지원할 순 없습니다. 또 학생부 종합 내에 활동 우수형, 국제형, 기회 균형Ⅰ·Ⅱ가 있는 연세대의 경우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. 단, 연세대의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, 학생부 종합 전형, 논술 전형 등 전형을 달리할 경우 동일 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 @

MORE TIP

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“고교 블라인드 평가로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진다. 실제로 수시에서 전형을 달리해 같은 대학, 같은 학과를 여러 번 지원해 중복 합격한 사례도 종종 확인한다. 복수 지원이 가능한 곳은 복수 합격도 가능하므로 진로 희망이 뚜렷할 경우 복수 지원을 활용하면 된다”고 설명합니다.

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@naeil.com



〈내일교육〉 편집팀이 매주 독자

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.

초·중·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·입시·진로·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.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. 이메일(asjung@naeil.com)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_편집자